



이 상 배 이사
(주)삼화교육

해외 박람회(전시회)를 참관하는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 태국 축산박람회를 다녀와서…

우리가 영위하고 있는 양계업은 크게는 농업의 범주에 속한다. 농업은 생산에서 출하에 이르기까지 환경적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양계업은 전업농 형태를 띠고 있어서 그나마 선진국과의 생산비 차이가 타 농업 업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는 편이다.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사양관리 기술과 가공, 설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술을 받아들인 덕분에 우리나라의 축산업도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실의 원천이 발전된 선진국의 신기술을 습득해 더 높은 생산성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세계 곳곳에서 열리는 각종 축산 박람회를 찾아다니며 참관을 한 덕은 아닌지. 아무리 좋은 기술과 제품이 있더라도 보고 받아들여 적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매년 세계 방방곡곡에서는 축산 관련 분야의 크고 작은 박람회(전시회)가 열린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애틀랜타 박람회, 유럽에서는 네덜란드의 유트레트와 독일의 하노버 박람회가 매년 번갈아 열리고 있고, 중국과 태국이 VIV 아시아 전시회를 격년마다 개최하고 있다.

축산박람회 참관은 세계의 선진 기자재와 동물약품, 품종 등의 발전과 변화상을 짧은 시간동안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한 박람회 기간 중 각종 관련 세미나도 열리니 관심 있는 분야에 참석해 필요한 정보도





언을 수 있다.

특히 태국 축산박람회는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 지리적으로 가깝고 비용이 저렴하면서도 국제적인 규모의 박람회이다 보니 한국인 축산업자로서 참관하기에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적이다. 올해에도 지난 3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태국 BITEC(Bangkok International Trade & Exhibition Center)에서 개최된 축산박람회(VIV Asia 2007)를 참관하기 위해 많은 한국 축산업자들이 태국을 찾았다.

이번 태국 여행객들은 대개 양계관련 단체를 비롯한 동물약품 및 기자재 등을 취급하는 업체에서 여행사와 연계하여 참관인들을 모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규모는 대략 400명에서 많게는 600명 선에 이른 것으로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양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이나 유럽은 이미 생산기반이나 소비가 한계상황에 도달해 앞으로는 아시아가 생산과 소비신장에 매우 중요한 잠재적 발전가능성을 가진 나라로 생각하여 양계와 관련된 글로벌 기업들은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곳에서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약 20여개 백신, 약품 및 기자재 업체들도 내수의 한계를 벗어나려는 몸부림 속에 태국 박람회에 제품을 출품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을 선포하듯 열띤 판촉활동을 하는 것도 볼 수 있었다.

축산박람회 참관을 위해 여행하는 사람이 많다면 주관업체들의 계획에 따라 프로그램이 다양하겠으나 참관을 위해 참석했던 한사람으로서 아쉬움을 느낀 나머지 일부 여행 프로그램과 여행객들의 행동들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먼 해외 전시회에 갔다고 갈 때부터 올 때까지 전시장만 지키라는 주문은 아니다. 그러나 우선 전시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먼저 수집하고 나서 남는 시간에 딱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속담처럼 관광하는 여유를 가져야 하는데 만나절도 안 되는 형식적 축산박람회 참관을 끝내고 단체로 전시장을 빠져나가 관광지로 향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 못내 마음이 씩씩했다. 외화낭비라는 거창한 표현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난 수십 년간 이 업을 발전시켜온 양계인들이 선진 해외정보를 수집하여 사업발전에 접목하기 위해 올렸던 열정들은 다 어디로 가고 일반 관광객으로 전락하여 우르르 몰려다니며 무엇을 얻고자 했음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연년세세화상사(年年歲歲花相似)’란 옛말이 있듯이 그저 단순히 해마다 피는 꽃이 비슷하다는 의미만 강조하려고 표현한 말은 아니다. 같은 꽃이라도 보는 느낌에 따라서 다르듯이 전시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매년 개최되는 축산 전시회가 계속해서 똑같다면 처음 보는 사람만 참관할 것이다. 필자가 잘 아는 매년 참관하는 일부 유럽 사람들은 그 속에서 경쟁력을 찾을 수 있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느낀다는 프로정신에 입각한 견해를 밝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들처럼 전문가적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놓인 우리의 양계산업을 바라볼 때 내 농장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정보 수집과 경쟁력 확보 대처방안 마련을 위한 고민과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 아닌지.